

‘IPO 대어’ 바이오팜 청약증거금 ‘역대 최대 30조’ 깨나

수요예측에 570조 몰려 ‘대흥행’
공모주 역대 최대 증거금 기대도
상장 첫날 상한가면 160% 수익
초기에 유통물량 적어 주가 매력

〈SK바이오팜 공모개요〉

공모주식수 (일반청약자 공모)	1957만8310주 (391만5662주)
공모가	4만9000원
공모금액	9593억원
공모가 기준 시총	3조8373억원
상장일 시초가	4만4400원~9만8000원
상장일 증가	3만870원~12만7400원
증거금 납입기한	6월26일
상장 예정일	7월2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 23~24일 실시된다. 기관투자자 청약에서 예고된 흥행을 증명하며 일반투자자의 청약 경쟁력 역시 치열할 전망이다.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갖춘 데다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확보한 파이프라인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가치 대비 주가수준)이라는 평가다.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추종 패시브 자금까지 기대할 수 있다.

상장 일정은 예상대로 순조롭다. 지난 19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8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몰려든 기관투자자가 자금만 약 570조원, 5000억원 이상 공모기업 중 역대 최대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4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른 공모금액은 9600억원에 달한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약 3조8373억원 규모다.

◆역대 최대 증거금·경쟁률 관심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기록은 현재 제일모직이 갖고 있다. 574만9990주를 공모했던 2014년 12월 일반 청약 경쟁률이 194.9대 1에 달했다. 청약 증거금도 30조650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번 SK바이오팜 일반 청약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인 391만5662주다. 만일 제일모직을 넘어서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나온다면 30조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SK바이오팜이 내놓는 공모주 물량은 총 1957만8310주다. 이 가운데 우리사주에 2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80%가 일반 공모주 청약 물량이다. 80% 가운데 60%가 기관에 배정되고, 일반 투자자 물량은 전체의 20%인 391만5662주다.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ARS, 지점 방문 등을 통해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다. 공모주를 배당받은 NH투자증권(180만주), 한국투자증권(121만주), SK증권(55만주), 하나금융투자(34만주)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배정물량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주를 받기 위해 청약 증거금을 넣었다더라도 경쟁률이 100대 1이면 배당받는 주식은 1주에 불과하다.

◆상장 첫날 12.7만원까지 가능… 밸류에이션 ↑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모가가 보수적으로 책정된 터라 상장 첫날 12만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SK바이오팜의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액 4만9000원의 90~200%인 최소 4만44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까지다. 만일 시초가 상단이 상한가를 칠 경우 12만7400원까지 될 수 있다. 공모가의 최대 160%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상장 이후 초기 유통물량이 전체 5%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주가 흐름을 낙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 상황과 제품의 경쟁력, 판매 전략을 고려하면 블록버스터급 매출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약가 인상률과 점유율 상승속도에 따라 예상 매출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코스피200 편입 ‘유력’… 패시브 자금 기대

증거금에선 코스피200 조기편입도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후 15거래일만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들면 된다. 코스피200에 조기편입 되기 위한 시가총액 마지노선은 약 4조2000억원, 주가로는 약 5만4067원이다.

코스피200 편입조건을 달성하면 오는 9월 11일엔 지수 편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등 추종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중장기 주가 흐름도 힘을 받게 된다. 조기편입일은 15거래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최근월물 만기 다음날이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코스피 200 조기편입이 유력하다”며 “코스피200 추종 자금을 60조원으로 가정하면 SK바이오팜에 약 900억원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매장이 곧 산지… 마트,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

〉1면 ‘푸드테크 기획’서 계속

물류센터 세우고 투자·영역 늘려

쿠팡의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 매출은 2017년 약 1085억원에서 지난해 약 5845억원으로 늘었다. 쿠팡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메가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이미 로켓배송을 위해 물류센터를 24개까지 확보한 쿠팡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물류센터 착공식을 열었으며 오는 2021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선식품’ 선점에 몰두

대형마트들은 신선식품 강화도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상품본부를 그로서리 본부와



롯데마트 직원이 ‘바로배송’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쇼핑

비식품 본부로 나눴다. 신선식품 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발굴·기획하고 들여오는 역할을 세분화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밀 혁신 부문’을 신설해 식품 부문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충청북도 증평에 1만7000평 규모의

신선식품혁신센터를 세웠으며, 지역 우수생산자 채소를 판매하는 ‘로컬채소 전문매장’을 2014년 31개에서 지난해 110개점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전점 도입이 목표다. ‘매장이 곧 산지’라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신

선식품의 절대 우위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는 신선A/S센터를 세우고 품질보장제를 운영 중이다. 신선식품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안전센터 총괄에서 각 산지 및 업체에 직접 방문해 품질을 검증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으며, 농·수·축 전문 품질관리자(TM, 테크니컬매니저)를 산지에 파견해 품종선별 및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는 833억 원을 투자한 ‘스마트 푸드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식품제조사업에 뛰어 들었다. 기존 단체급식사업과 식자재 유통사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면 ‘캠코, 자산매입’서 계속

캠코 부지 매입엔 서울시와 새 국면

캠코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서울시와의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이달 초 송현동 부지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며 공원화 계획을 공표했지만, 캠코의 부지 매입으로 대한항공이 5000억~6000억원의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캠코가 먼저 부지를 매입한 후 서울시에 땅을 되팔거나, 아예 캠코가 양측의 매각 조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캠코 측은 아직까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입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사회 논의 사항에 대해 “캠코채를 2조원으로 발행하는 것을 미리 승인받는 행위다. 6월 중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다”며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다. 7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매입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은 앞서 채권단으로부터 받기로 한 자금 1조2000억원 가운데 영구채 3000억원을 발행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현대·기아차 “2025년 순수 전기차 23종, 세계 3위 목표”

〉1면 ‘구광모 찾은 정의선’서 계속

‘E-GMP’ 기반의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탑재될 LG화학 제품은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 전용 모델의 특징점들과 시너지를 창출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향후 본격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1년 첫 순수 전기를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 누적 27만여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전문 매체인 EV세일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1분기 총

2만4116대의 순수 전기를 판매해 테슬라(8만8400대), 르노-닛산-알라이언스(3만9355대), 폭스겐그룹(3만3846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를 판매해 수소전기차 포함 세계 3위권 업체

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지난해 2.1%에서 2025년 6.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기차에 필요한 최적화된 배터리 성능 구현을 위해 연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향후 전기차 전용 모델에 탑재될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배터리에 대한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